

021322 주일설교 “축복” 누가복음(Luke) 6:17-26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 러라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가 너희 것임이요

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 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축복” 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기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 이미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의 의지하며 여호와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 가 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 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뒤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 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
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트럭으로 온 동네를 누비며 수박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박장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수박을 파는데 유난히 수박이 팔리지 않았네요. 저녁 때가 됐지만 수박은 차에 한 가득 실려 있었고, 더 이상 팔리지 않았습니다. 수박장수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장사를 접고 집으로 가고 있었죠.恍김에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도 하면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고속도를 내며 경찰차를 따돌려 보겠다는 놀라운 생각을 한 수박장수와 이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경찰차. 주먹전을 벌인지 20여분여 수박장수는 결국 경찰 따돌리기를 포기하고 정신이 좀 돌아와서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수박장수에게 달려오며 한 마디, "아저씨! 수박 한통만 주세요!"

경찰차가 수박 트럭을 쫓아온 이유가, 과속을 해서가 아니라, 수박이 필요해서 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잊고 계시다가 우리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실려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내 죄 값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도전받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실제로 하루 하루를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팔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사복 사화” 즉, 네가지 복과 네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수훈)’ 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무병장수, 세속적 출세나 성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이 흠족해지는 겁니다. 이와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복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십니까? *아직 점심식사를 안하신 분들은 분명히 배가 고프실텐데, 나는 과연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 합니까? 의에 주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자신에게 의가 없고 죄만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의가 이미 많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 날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게 피차 부담스러운 때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의” 가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겠습니까?

배고프면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나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의를 갈망하면 의를 풍성히 얻게 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풍성한 의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롬 3:20-22).

어느 성경 주석에 보면, “복이 있나니” 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단순히 일시적인 행복과 기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전에 “회개” 에 대해서 설교했었을 때, 회개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이 있다는 [마카리오스]와 그 의미가 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말해서, 회개와 축복 이 두 단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단어 모두 하나님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을 꾸중하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히려 안아주고, 다시금 귀한 아들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한번 여쭙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오늘도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있으십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축복” 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의미하는 축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삶에 깨달으시고 단 한가지라도 작은 변화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